

무안항토갯벌랜드 개장

특별 프로그램 운영도

물놀이장·마술·버블쇼·난타 등 감성캠프

무안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무안항토갯벌랜드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숙박객 등을 위하여 어린이 물놀이장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달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물놀이장 이용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무안항토갯벌랜드 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물놀이장에서 주말에 감성캠프 특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물놀이 레크레이션도 진행될 예정으로 관광객의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성캠프 특성화 프로그램은 지난 해 마술, 버블쇼, 난타,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등을 실시하여 매해 1,000여 명의 부모와 어린이들의 참여로 큰 사랑을 받은 무안항토갯벌랜드의 대표 행사이다.

올해도 지난 4월부터 주말을 이용해 매월2회(둘째·넷째주) 감성캠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9월까지 감성캠프 특성화 프로그램은 동물교감체험, 버스킹, 버블쇼로 관광객을 찾아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로컬푸드 판매장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쌀과자·고구마쿠키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태갯벌 과학관에서는 질면조 그림그리기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 그리고 이색자전거와 킥보드를 타며 전해의 자연을 즐길 수 있어 여행의 묘미를 더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입소문으로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가족단위힐링 대표관광지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방문 전 홈페이지에서 미리 정보를 확인하시면 더욱더 알찬 행복한 여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목포국제축구센터, 물놀이장 개장

내일부터 8월 25일까지 운영, 입장료 4천원~7천원



목포국제축구센터(이하 목포FC)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시원한 하프드 그늘 아래에 물놀이장을 오는 19일 개장한다.

19일부터 다음달 25일 까지 운영되는 목포FC 물놀이장은 연령별 이용 가능한 성인풀과 유아수영, 유아풀을 비롯해 놀이기구인 에어슬라이드 3개와 유아용 에어바운스를 갖추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입장료는 25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은 4천원, 학생 6천원, 성인은 7천원이며, 만 65세이상 어르신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50%할인 된다.

개장 9년째를 맞는 목포FC 물놀이장은 피서철 멀리 떠나지 않고도 시원한 그늘과 안전한 인조잔디에서 편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알뜰한 피서지로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노후된 성인풀을 신규로 교체하고 유아용 에어슬라이드를 추가했으며, 샤워실에 온수를 제공하고 무료 야외 바베큐장을 개설하는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이용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영암군, 고구마 재배농가 역량강화 교육

영암군은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고구마 재배농가 15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친환경 고품질 고구마 생산을 위한 농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한서아그리로 임정식 박사의 고구마 재배농가 조직화 교육을 시작으로, 바이

오시현장 남상식 연구관의 고구마 재배기술 교육, 한국청과 이용호 차장의 고구마 생산 및 시장전망, 농업기술센터 고영란 팀장의 무균묘 조직배양 및 공급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임정식 박사는 고구마 재배농가 조직화를 통한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구축, 생산자간 기술정보 공유 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남상식 연구관은 고품질 다수확 고구마 생산을 위해서는 종자시기부터 지속적인 관리와 과다한 비료 사용의 금지 등 고구마 재배기술 매뉴얼에 대해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청과 이용호 차장은 상품성 향상을 위한 선별과정의 유의점 및 중도매인, 소비자 맞춤형 농산물 공급, 안정된 물량 공급, 출하시기 조정 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영암=조대호 기자

완도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염지하수 개발 성공

해수풀장 및 향후 해양치유센터 수 치유자원 활용



완도군이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 해양치유 자원인 염지하수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염지하수 부존조사 및 개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염분 농도가 기준에 적합한 염지하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염지하수란 바닷물과 민물이 지하 암반층 밑으로 흘러들어 섞인 물을 말한다.

염지하수가 발견된 지역은 완도군이 해양치유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신

지명사십리 해변이다.

총 3개 공을 시추한 결과 1, 2호 공은 염분 농도가 3퍼밀(%)이하로 낮았으나 3호 공은 7-10퍼밀(%)로 염지하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사십리 앞바다 바닷물 염분 농도는 약 35퍼밀(%) 정도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지하수지질부 김대화 과장은 "염지하수를 찾기 위해 지하 150m까지 시추하여 양수량은 1일 약 100톤까지 생산 가능하며, 45개 항목의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 공 모두 저온세균과 중온세균이 기준치보다 낮게 검출되어 당장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염지하수로 활용할 수 있는 3호 공에 수중 모터를 설치하여 7월 19일부터 명사십리 해양치유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시마 풀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강진군, 제5회 한국민화대전 성료

강진군 청치촌에 위치한 한국민화뮤지엄이 '제5회 대한민화대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민화대전은 전통 문화유산인 민화의 계승·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강진군이 주최하고 전라남도과 전남도 교육청이 후원하여 한국민화뮤지엄 주관으로 열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민화공모전이다.

민화부와 민화를 접목한 공예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해당 공모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218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공예 부문에 걸출한 대작들이 출품되면서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한국민예연구소 허균 소장이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하였으며 한국미술협회 김재열 고문, 민수희 권선녀 회장, 세화예술문화재단 이승현 이사, 실천창작민화연구회 정하정 대표 등 총 5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대상 수상에 영예를 안게 된 김수정 씨의 'space2019'는 다양한 화목의 민화 소재들을 분해하고 재구성하면서 개성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홍은미 씨의 '요지연도'와 유영희 씨의 '회소식'에게 돌아갔다. '요지연도'는 치밀한 표현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재현의 완성도 면에서 큰

점수를 받았다. '회소식'은 민화 속 호랑이와 까치에 현대적 미감을 더해 새롭게 구성하면서도 호랑이의 표정이나 발랄한 색감 등에서 길상적인 의미를 극대화한 작품이다.

세밀한 묘사와 적절한 색의 사용이 돋보이는 김지현 씨의 '호피장막도'와 감각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구성이 특징적인 김진희 씨의 '책거리'는 우수상에 당선되었다. 또 김도원 씨의 '화조 다그오다'는 목재 구조물과 민화가 그려진 다양한 형태의 기물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현대적 책가도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구성 감각으로 공예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역시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총력

진도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차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3월부터 관내 전 돼지농장 29개소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자를 추진해 주 1회 이상 방문, 전화예찰 등 선제적 차단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은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과 함께 추가적인 방역을 위해 주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해 농장·농장주변 소독, 방역시설 점검, 외국인 근로자 관리 등 1대1 맞춤형 농장 방역지도도 추진하고 있다.

또 농가에 생석회 등 소독약을 지원해 자체방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농장주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방

역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바이러스 유입의 중점관리사항인 야생 멧돼지 대응을 위해 야생멧돼지 기피제를 농가에 지원하고 전염원이 될 수 있는 잔반 처리실태를 점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료제나 백신이 없고, 치사율은 최고 100%에 이르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이다. 최근 1년 사이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인접한 아시아지역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1건이 발생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신안군, 환경미화원 작업

환경개선에 적극 나서

신안군은 지난 17일 환경미화원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지도읍 등 8개 읍면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에 다목적 운반차 8대를 배치했다.

군은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을 위해 매분기 안전보건교육 실시는 물론 각종 안전 용품을 지속적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임금인상과 복리후생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다목적 운반차량 도입은 기존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질환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